

“동포 민원 끝까지 챙긴다”...제2차 민원 조사 실시

- 분과위원회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추가 해결 추진
- “동포 민원 제로” 목표로 후속 조치 이어가...

【관련 국정과제】 123. 재외국민 안전과 편익 증진 및 재외동포 지원 강화(국격에 걸맞은 수요자 맞춤형 재외동포 지원)

- 재외동포청(청장 김경협)은 5월 8일(금)부터 6월 8일(월)까지 전 세계 동포사회 민원·건의사항 2차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.
 - 이번 조사는 지난 1차 조사에 이어 전 세계 재외공관을 통해 진행된다. 공관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은 현장에서 바로 조치하도록 했다.
- 앞서 재외동포청은 지난 1월 대통령 주재 재중한국인간담회 후속 조치로 1차 민원 조사를 실시했다.
 - 당시 188개 재외공관과 국내 동포단체를 통해 1,438건의 민원과 건의사항이 접수됐으며, 34개 관계 부처 검토를 거쳐 4월 중순 민원인에게 1차 답변을 전달했다.
- 현재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실무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*를 중심으로 해결되지 않은 민원에 대한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.
 - * 6개 분과위원회 : ①법·제도, ②차세대동포·교육, ③역사적 특수동포, ④동포서비스, ⑤동포단체지원, ⑥국내귀환동포
 - 5월 중순 6개 분과위원회 회의 종료 후, 동포사회의 핵심 민원에 대해서는 청와대 주도의 범부처 TF를 가동하여 해결책을 모색할 예정이다.
 - 현재까지 진행된 분과위원회 개최 결과, 공관을 통한 △국제운전면허증 신청 및 수령, △운전면허증(1종보통) 갱신 등의 민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검토키로 했다.

□ 김경협 청장은 “동포들이 해외 생활 속에서 겪는 불편과 어려움을 끝까지 챙기겠다”며 “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, 온·오프라인 소통을 통해 ‘동포민원 제로’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.”고 말했다. 끝.

담당 부서	재외동포청 재외동포정책과	책임자	과 장	곽삼주 (032-585-3154)
		담당자	서기관	이명재 (032-585-3158)
			주무관	장현석 (032-585-3157)

